

##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안은영<sup>1,\*</sup> · 이해경<sup>2,†</sup>

<sup>1</sup>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

<sup>2</sup>국립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022년 4월 8일 접수: 2022년 4월 22일 수정: 2022년 4월 26일 채택)

### Effect of Nurse's Perce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of Contac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hn Eun-young<sup>1,\*</sup> · Hye-Kyung Lee<sup>2,†</sup>

<sup>1</sup>health and Medical Center for the Disabled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pril 8, 2022; Revised April 22, 2022; Accepted April 26, 2022)

**요약** :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 2개 대학병원과 C특별자치시 소재 1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81명이었다. 자료는 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t=-3.96, p<.001$ ),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t=3.23, p=.001$ ),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 $t=2.13, p=.035$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 $t=2.90, p=.004$ ), 장애인건강권법 인지 여부( $t=2.44, p=.016$ )이었으며, 30%의 설명력을 보였다( $F=9.36, p<.001$ ).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인권감수성, 장애인건강권법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

†Corresponding author

(E-mail: hkleee@kongju.ac.kr)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University.

\* 이 연구는 2022년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됨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nurses' perception of the disabled, contact experience with the disabled,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81 nurses working at two university hospitals in D City and one university hospital in C Special Self-Governin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 2021 to October 6,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6.0 program, and analyzed wit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erce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3.96$ ,  $p<.001$ ), presence or absence of contact with patients with disabilities( $t=3.23$ ,  $p=.001$ ), and the ability to perceive responsibility among human rights sensitivity( $t=2.13$ ,  $p=.035$ ), whether or not they had completed education for improvement the awareness of the disabilities( $t=2.90$ ,  $p=.004$ ), and whether they were recognized of the Act on the Right to Health and Medical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t=2.44$ ,  $p=.016$ ), which showed 30% of explanatory power( $F=9.36$ ,  $p<.001$ ).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foster nurse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including awareness of the disabled,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Health Rights Act for the Disabled, and the experience of contact with the disabled.

*Keywords :*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erceptions of the disabled, experiences of contact with the disabled, human rights sensitivi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14년 250만 명, 2017년 258만 명, 2020년 262.3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총인구대비 5.4%로[1-3], 이 중 80.0%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현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은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는 소득보장(48.9%)이고, 2순위는 의료보장(27.9%)이다[4].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신체활동, 높은 비만율, 만성질환과 우울증 유병률이 높아 평생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다[5]. 장애인의 76.3%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70.6%로 나타나 2/3 이상의 장애인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4]. 그러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동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 건강관리의 지원 부족 및 의료인이 인식하는 장애에 대한 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다[5,6].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건강권법)이 2021년도 시행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화 산부인과 지정, 장애인보건 의료센터 및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6]. 이러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주요 실무자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치료사로 구성된 보건 의료 전문가이며 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장애인의 치료에 대한 반응, 재활, 사회로의 복귀 등에 중요한 영향[7]을 미치므로 효율적인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8].

태도란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양태를 말하며 Allport에 의하면 [9] 태도란 심적이고 생리적인 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태도 대상과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0].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수용 태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받아들인 교육,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 패턴의 상호작용을 통

해 자신의 견해와 태도를 개발하고 사회적·문화적 규칙을 내재화하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장애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이 어떠한 인지적·감정적·행동적 요소를 통해 표출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12].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장애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중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은 그들이 정상적인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13].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접촉경험, 관심, 자원봉사 경험, 장애체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14-17], 간호사가 인식하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의미하며,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18]. 인식에 대한 속성은 태도를 결정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하므로[19]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장애인 인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적·물리적 측면의 개선과 인식제고 등의 실천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장애인과의 진정한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접근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20]. 더욱이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대상자의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7]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그들이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고, 장애인 관련 봉사 및 도우미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 관련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21-23].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이며[7], 장애인과의 접촉시간을 늘리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태도의 변화를 촉진시킨다[24].

또한 서로 다른 사회집단의 개인과 개인이 직접 접촉하면 더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빈도 및 기간과 같은 접촉의 특성이 고정 관념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9]. 이러한 접촉경험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촉경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인권감수성은 도덕적 민감성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개념[25]으로 인권문제 발생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였을 때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또한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26]. 간호사에게 있어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건강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간호사는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때 인권감수성은 인권옹호행동을 위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27]. 간호사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은 훈련에 의해 강화될 수 있으며[28],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옹호간호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29]. 인권감수성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간호사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정신과수련의보다 낮게 나타났다[30-32]. 이에 환자의 인권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중 약 46.2%로 큰 비중을 차지[33]하며,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만나는 최초의 의료인[34,35]이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와 직접적인 대면이 가장 많고[36], 24시간 내내 환자의 곁에서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37]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과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

도를 파악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 경험, 인권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 경험, 인권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 2개 대학병원과 C특별자치시 소재 1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version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10개)최소 필요수는 172명으로 산출되었으며, 10%의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190부를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7부가 회수되었고 불완전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8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Kim 등[38]이 개발한 도구를 Shin 등[22]이 수정·보완한 장애인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그런적 없음’ 1점, ‘매우 자주’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는 최소 20점에서 최대 80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Shin 등[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2이었다.

#### 2.3.2. 장애인 접촉경험

장애인 접촉경험은 Yaker & Hurley[39]가 간호사, 약물·재활인력, 심리학 대학원생, 대학행정 직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장애인 접촉경험 척도(Contact Disabled Persons Scale, CDP)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접촉의 양과 유형 12문항, 정서적 요소 8문항 총 20문항으로 ‘그런적 없음’ 1점, ‘매우 자주’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Yaker & Hurley[3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이며 하위영역별로 접촉의 양과 유형 .84, 정서적 요소 .87이었다.

#### 2.3.3.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은 Moon 등[26]이 대학생 및 성인용 도구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Scale for Human Right Sensitivity)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10개의 에피소드 중 선행연구[29, 40-45]에서 자주 사용한 6개의 에피소드를 선정하였다. 에피소드는 가족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장애인 학교(장애인의 교육권), 강원대상(성차별),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사생활권), 의사의 고민(장애인의 신체 자유권), 진료자 명단(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에피소드 당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등 3가지 지각별로 2문항씩이고, ①번 문항이 비인권, ②번 문항이 인권에 관한 질문이다. 각 에피소드 당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인권감수성 전체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권감수성 척도는 인권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에서 인권에 초점을 둔 선택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매우 중요하다’(5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에피소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인권감수성 문항에 대한 점수가 다른 가치 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 점수를 부여하고 인권감수성 문항보다 다른 가치 문항의 점수가 높거나 같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하였다. 각 지각 척도별로 최대 30점을 받을

수 있고, 인권감수성 전체는 최소 0점에서 최대 90점까지 받을 수 있다. Moon 등[2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8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인권문항 전체는 .88, 상황지각능력 .71, 결과지각능력 .74, 책임지각능력 .61이며, 비인권문항 전체는 .84, 상황지각능력 .58, 결과지각능력 .62, 책임지각능력 .6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0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인권문항 전체는 .83, 상황지각능력 .52, 결과지각능력 .64, 책임지각능력 .55이며, 비인권문항 전체는 .83, 상황지각능력 .57, 결과지각능력 .60, 책임지각능력 .53이었다.

### 2.3.4.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Yi 등[46]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보건의료전문가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사용하였다. 보건의료전문가의 장애인에 대한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지식 및 기술 4문항, 보건의료인의 책무 4문항, 간호 시 행동 8문항, 정서반응 4문항으로 총 20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Yi 등[4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 지식 및 기술 .88, 보건의료인의 책무 .86, 진료 시 행동 .89, 정서반응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지식 및 기술 .86, 보건의료인의 책무 .83, 간호 시 행동 .91, 정서반응 .86이었다.

###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인 관련 특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3)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

경험, 인권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KNU\_IRB\_2021-66)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익명성 보장, 비밀유지 및 중도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알렸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3년간 보관 후 문서 세절기로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인 관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94.5%, 남성 5.5%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3.23 \pm 8.51$ 세로 29세 이하 44.2%가 가장 많았다. 미혼인 경우 56.9%, 종교는 없는 경우가 59.1%로 많았다. 학력은 학사 이하가 75.1%, 임상경력 7년 이상이 50.8%,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7.3%로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55.2%,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43.1%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장애인 가족 또는 지인 유무는 없는 경우가 85.1%, 장애인환자 접촉유무는 접촉한 경우가 79.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여부는 이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62.4%로 많았으며,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는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가 53.0%로 많았다.

### 3.2.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 경험, 인권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도는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평균  $40.81 \pm 6.09$ 점(20~80)이고, 장애인 접촉경험은 평균  $28.61 \pm 8.60$ 점(20~100)으로 낮

은 편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접촉의 양과 유형은 평균  $18.74 \pm 5.81$ 점(12~60), 정서적 요소는  $9.87 \pm 3.43$ 점(8~40)이었다. 인권감수성은 평균  $41.56 \pm 19.13$ 점(0~90)으로 중간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상황지각능력이  $14.06 \pm 7.12$ 점(0~30), 결과지각능력이  $13.78 \pm 7.04$ 점(0~30), 책임

지각능력이  $13.72 \pm 7.29$ 점(0~30)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76.12 \pm 9.48$ 점(20~100)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지식 및 기술이  $11.97 \pm 2.97$ 점(4~20점), 보건의료인의 책무가  $16.62 \pm 2.28$ 점(4~20), 간호 시 행동이  $32.57 \pm 4.46$ 점(8~40), 정서반응은  $14.96 \pm 3.19$ 점(4~20)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Gender	Female	171(94.5)	
	Male	10(5.5)	
Age(year)	≤29	80(44.2)	33.23±8.51
	30~39	54(29.8)	
	40~49	44(24.3)	
	≥50	3(1.7)	
Marital status	Unmarried	103(56.9)	
	Married	78(43.1)	
Religion	Yes	74(40.9)	
	No	107(59.1)	
Education level	University	136(75.1)	
	≥Master	45(24.9)	
Clinical experience(years)	<1	21(11.6)	9.70±8.53
	≥1~<3	34(18.8)	
	≥3~<5	12(6.6)	
	≥5~<7	22(12.2)	
	≥7	92(50.8)	
Position	Nurse	158(87.3)	
	Charge nurse	14(7.7)	
	≥Head nurse	9(5.0)	
Duty pattern	Shifts	100(55.2)	
	Fixed	81(44.8)	
Work department	Ward	78(43.1)	
	Special	33(18.2)	
	Outpatient	22(12.2)	
	Other	48(26.5)	
disabled family	Yes	27(14.9)	
	No	154(85.1)	
Contact with disabled patients	Yes	143(79.0)	
	No	38(21.0)	
Completion of education to improve awareness of the disabled	Yes	68(37.6)	
	No	113(62.4)	
*Disabled Health Rights Act	Know	85(47.0)	
	Not know	96(53.0)	

\*Act on Guarantee of Health Rights and Medical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led Health Rights Act

Table 2. Scores for Experience of Contact Disabled Persons(CDP), Human Right Sensitivity(HRS), Attitude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y(APD)

(N=181)

Variable	Categories	M±SD	Range
Awareness towar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40.81±6.09	20~80
Experience of Contact Disabled Persons (CDP)	Amount and type of contact	28.61±8.60	20~100
	Emotional component	18.74±5.81	12~60
		9.87±3.43	8~40
Human Right Sensitivity (HRS)		41.56±19.13	0~90
	Situational awareness	14.06±7.12	0~30
	Result perception ability	13.78±7.04	0~30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13.72±7.29	0~30
		76.12±9.48	20~100
		11.97±2.97	4~20
Attitude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y (APD)	Knowledge and skills	16.62±2.28	4~20
	Responsibility of healthcare professionals	32.57±4.46	8~40
	Behaviors in clinical situation	14.96±3.19	4~20
	Emotional response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인 관련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별 차이는 <표 3>와 같다. 지식 및 기술은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t=2.74, p=.007$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여부( $t=3.82, p<.001$ ),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 $t=4.02,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건의료인의 책무는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t=2.58, p=.011$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여부( $t=2.56, p=.011$ ),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 $t=3.35,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 시 행동은 직위( $F=3.38, p=.036$ ),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t=3.21, p=.00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여부( $t=3.60, p<.001$ ),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 $t=2.77, p=.006$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위는 책임간호사가 가장 많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가 많았다. 정서반응은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t=2.83, p=.005$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여부( $t=2.42, p=.017$ ),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 $t=3.12, p=.002$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4.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 경험, 인권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식 및 기술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r=-.20, p=.007$ )과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 장애인 접촉경험 중 접촉의 양과 유형( $r=.22, p=.002$ )과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보건의료인의 책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r=-.33, p<.001$ )과는 중등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장애인 접촉경험 중 접촉의 양과 유형( $r=.18, p=.016$ ), 인권감수성 중 결과지각능력( $r=.240, p=.001$ )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이었고, 책임지각능력( $r=.30, p<.001$ )과는 중등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 시 행동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r=-.28, p<.001$ )과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장애인 접촉경험 중 접촉의 양과 유형( $r=.17, p=.025$ ), 인권감수성 중 결과지각능력( $r=.15, p=.038$ ), 책임지각능력( $r=.17, p=.020$ )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반응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r=-.31, p<.001$ )과는 중등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장애인 접촉경험 중 접촉의 양과 유형( $r=.18, p=.013$ ), 인권감수성 중 상황지각능력( $r=.17, p=.024$ )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Difference in Awareness towar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nd skills		Responsibility of healthcare professionals		Behaviors in clinical situation		Emotional response	
		M±SD	t or F(p) Scheffé test	M±SD	t or F(p) Scheffé test	M±SD	t or F(p) Scheffé test	M±SD	t or F(p) Scheffé test
Gender	Female	11.94±2.97	-0.58 (.560)	16.64±2.30	0.32 (.750)	32.58±4.53	0.20 (.845)	14.96±3.22	-0.04 (.969)
	Male	12.50±2.92		16.40±2.17		32.30±3.23		15.00±2.91	
Age(year)	≤29	12.26±2.73		16.61±2.29		32.41±4.69		14.59±3.05	
	30~39	12.04±3.18	1.20 (.310)	16.76±2.08	0.17 (.917)	32.59±4.32	0.09 (.965)	15.50±3.23	0.89 (.447)
	40~49	11.27±3.11		16.45±2.57		32.77±4.29		14.95±3.44	
	≥50	13.00±2.65		17.00±2.00		33.33±5.51		15.33±2.52	
Marital status	Unmarried	12.21±2.86	1.29 (.199)	16.63±2.31	0.05 (.964)	32.45±4.43	-0.42 (.673)	14.73±2.99	-1.13 (.260)
	Married	11.64±3.09		16.62±2.27		32.73±4.53		15.27±3.43	
Religion	Yes	12.22±2.97	0.94 (.348)	16.84±2.23	1.05 (.297)	32.35±4.52	-0.54 (.587)	14.84±3.51	-0.43 (.666)
	No	11.79±2.96		16.48±2.32		32.72±4.44		15.05±2.97	
Education level	University	11.84±2.94	-1.01 (.312)	16.58±2.34	-0.44 (.658)	32.46±4.65	-0.59 (.555)	14.82±3.17	-1.06 (.289)
	≥Master	12.36±3.04		16.76±2.11		32.91±3.87		15.40±3.25	
Clinical experience (years)	<1	12.86±2.80		17.14±2.52		34.33±5.10		14.76±3.75	
	≥1~<3	11.47±2.96		16.68±2.28		32.29±4.00		14.79±2.85	
	≥3~<5	12.75±2.53	1.37 (.247)	16.83±1.70	1.07 (.371)	31.92±5.00	1.90 (.113)	14.67±1.83	0.59 (.672)
	≥5~<7	12.59±3.00		15.77±2.49		30.77±4.28		14.23±3.05	
	≥7	11.70±3.02		16.66±2.24		32.78±4.36		15.28±3.36	
Position	Nurse	9.91±3.58		16.54±2.33		32.34±4.51		14.87±3.16	
	Charge nurse	9.00±1.52	1.00 (.370)	17.71±1.59	1.78 (.172)	35.50±3.61	3.38 (.036) a <sup>c</sup> b	15.71±4.08	0.51 (.603)
	≥Head nurse	10.44±3.00		16.33±2.00		32.00±3.32		15.33±2.35	
Duty pattern	Shifts	12.27±2.99	1.53 (.127)	16.63±2.26	0.04 (.970)	32.57±4.70	0.003 (.998)	14.84±3.27	-0.57 (.571)
	Fixed	11.59±2.91		16.62±2.33		32.57±4.19		15.11±3.11	
Work department	Ward	12.41±3.20		16.59±2.38		32.77±4.85		15.08±3.48	
	Special	12.21±2.58	1.68 (.173)	16.88±1.95	0.44 (.728)	32.42±4.09	0.14 (.934)	14.12±2.90	1.28 (.283)
	Outpatient	11.23±2.86		16.81±2.42		32.73±4.36		14.68±3.03	
	Other	11.42±2.80		16.71±2.32		32.27±4.22		15.48±2.92	
disabled family	Yes	11.78±2.55	-0.36 (.721)	16.48±2.71	-0.35 (.726)	32.07±5.08	-0.62 (.534)	14.63±3.30	-0.58 (.560)
	No	12.00±3.04		16.65±2.21		32.66±4.36		15.02±3.18	
Contact with disabled patients	Yes	12.27±2.91	2.74 (.007)	16.85±2.18	2.58 (.011)	33.10±4.31	3.21 (.002)	15.30±3.26	2.83 (.005)
	No	10.82±2.94		15.79±2.49		30.55±4.50		13.68±2.59	
Completion of education to improve awareness of the disabled	Yes	13.01±2.81	3.82 ( $<.001$ )	17.18±2.13	2.56 (.011)	34.06±4.41	3.60 ( $<.001$ )	15.69±3.07	2.42 (.017)
	No	11.34±2.89		16.29±2.32		31.67±4.27		14.52±3.20	
*Disabled Health Rights Act	Know	12.87±2.54	4.02 ( $<.001$ )	17.21±2.10	3.35 (.001)	33.53±4.01	2.77 (.006)	15.73±3.06	3.12 (.002)
	Not know	11.17±3.09		16.10±2.32		31.72±4.69		14.28±3.16	



Table 4. Correlation among Awareness toward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of Contact Disabled Persons(CDP), Human Right Sensitivity(HRS), Attitude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y(APD) (N=181)

Variable	1	2	3	4	5	6	7	8	9	
	r(p)	r(p)	r(p)	r(p)	r(p)	r(p)	r(p)	r(p)	r(p)	
1. Awareness towar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1									
CDP	2. Amount and type of contact	-.09 (.256)	1							
	3. Emotional component	.03 (.680)	.71 (<.001)	1						
HRS	4. Situational awareness	-.33 (<.001)	-.02 (.800)	.04 (.553)	1					
	5. Result perception ability	-.36 (<.001)	.05 (.542)	.05 (.476)	.68 (<.001)	1				
	6.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30 (<.001)	.06 (.445)	.10 (.202)	.68 (<.001)	.71 (<.001)	1			
APD	7. Knowledge and skills	-.20 (.007)	.22 (.002)	.14 (.066)	-.06 (.395)	-.04 (.638)	-.03 (.724)	1		
	8. Responsibility of healthcare professionals	-.33 (<.001)	.18 (.016)	.12 (.104)	.12 (.103)	.24 (.001)	.30 (<.001)	.30 (<.001)	1	
	9. Behaviors in clinical situation	-.28 (<.001)	.17 (.025)	.03 (.743)	.001 (.986)	.15 (.038)	.17 (.020)	.41 (<.001)	.61 (<.001)	1
	10. Emotional response	-.31 (<.001)	.18 (.013)	.06 (.460)	.17 (.024)	.10 (.196)	.10 (.202)	.22 (.003)	.21 (.004)	.39 (<.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y (N=181)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85.73	5.71		15.01	<.001
Contact with disabled patients (1=Yes)	4.90	1.52	.21	3.23	.001
Completion of education to improve awareness of the disabled (1=Yes)	3.83	1.32	.20	2.90	.004
Disabled Health Rights Act (1=Know)	3.19	1.31	.17	2.44	.016
Awareness towar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0.44	0.11	-.28	-3.96	<.001
HRS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0.27	0.13	.21	2.13	.035
R <sup>2</sup> =.33 Adjusted R <sup>2</sup> =.30, F= 9.36 p<.001					

### 3.5.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 검정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인 장애인환자 접촉유무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여부, 장애인건강권법 인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에 잔차의 독립성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지수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였다. 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능력은 30%로 나타났다(F=9.36 p<.001).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장애

인 환자 접촉유무( $t=3.23, p=.001$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여부( $t=2.90, p=.004$ ),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 $t=2.44, p=.016$ ), 장애인에 대한 인식( $t=-3.96, p<.001$ ),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 $t=2.13, p=.035$ )이었다. 이 중 상대적 중요도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beta=-.28$ )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beta=.21$ ),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 $\beta=.21$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 $\beta=.20$ ),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 $\beta=.17$ ) 순이었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도는 100점 만점에 76.12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를 찾기 어려워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Kim 등[47]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120점 만점에 의료인은 57.4점, 일반인은 57.3점, 장애인은 60.62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의료인은 47.77점, 일반인은 47.80점, 장애인은 50.52점으로 본 연구보다 태도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Kim 등[47]의 연구는 2010년에 이루어진 연구로 본 연구와 1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으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화 등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인식이 10년전보다 더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Kim 등[47]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의사, 한의사, 간호사인 의료인인 반면 본 연구는 의료인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상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그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를 찾을 수 없어 비교의 한계가 있으며, 이는 추후 다른 직군의 태도를 연구하여 비교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간호 시 행동'에서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

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에서 축적된 지식과 다양한 경험 기반의 간호역량 상승으로 인한 업무의 자신감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나 성별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8,22,48-5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태도의 형성은 사회적·문화적·개인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별, 연령과 같은 일반적 요인보다 복합적으로 다양한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태도형성에 유의미한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며[22,52],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태도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장애수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장애인식의 변화로부터 선행된다고 하였다[53,54].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지식 및 기술, 보건의료인의 책무, 간호 시 행동, 정서반응)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지식 및 기술( $r=-.20, p=.007$ ), 보건의료인의 책무( $r=-.33, p<.001$ ), 간호 시 행동( $r=-.28, p<.001$ ), 정서반응( $r=-.31, p<.001$ )과 모두 중등도 이하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측정도구가 다르나 Kim 등[17]의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인 태도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 접촉경험 중 접촉의 양과 유형은 지식 및 기술( $r=.22, p=.002$ ), 보건의료인의 책무( $r=.18, p=.016$ ), 간호 시 행동( $r=.17, p=.025$ ), 정서반응( $r=.18, p=.013$ )과 모두 중등도 이하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An[55]의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접촉경험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본 연구의 설문 문항 내용은 장애 특성, 보조기기 등 장애 관련 지식,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등으로 장애인과의 접촉 양이 많은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험치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인권감수성 중 상황지각능력은 정서반응( $r=.17, p=.024$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인권문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권문제로 지각하는가를 보는 상황지각능력이 높을수록 장애인을 간호할 때의 불편감, 성가심, 부담감 등의 정서적인 문항으로 구성된 정서반응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인권감수성 중 결과지각능력은 보건의료인의 책무( $r=.24, p=.001$ ), 간호 시 행동( $r=.15, p=.038$ )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 책임지각능력은 보건의료인의 책무( $r=.30, p<.001$ ), 간호 시 행동( $r=.17, p=.020$ )과 중등도이하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 두 변수 모두 간호 시 행동과 보건의료인의 책무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인권감수성이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과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변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beta = -.28, p<.001$ )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정도는 80점 만점에 평균 40.81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직접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 [17,48,54]와 결과가 유사하다. 따라서 임상실무 현장 및 간호대학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beta = .21, p=.001$ )이며, 접촉이 있었다고 답변한 경우가 143명(79.0%)으로 과반수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환자 접촉유무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드물어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Yi 등[46]의 연구에서 장애인환자 진료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인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는 직접적이고 구조화된 특수한 접촉형태가 편견의 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Allport[9]의 접촉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환자 접촉이 유무에서 있다가 많게 나타난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근무환경이 일반 소규모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장애인환자 접촉유무'는 임상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호사와 환자로 장애인을 접촉한 경우로 장애인환자 접촉유무만을 단순히 조사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과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세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 $\beta = .21, p=.035$ )이었으며, 30만점에 평균 13.72점으로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련하여 총점 평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책임지각능력이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56]라는 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라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중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처한 환경이나 경력보다는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28,31], 간호사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 도구의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상황지각능력 .52, 결과지각능력 .64, 책임지각능력 .55), 이는 문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응답자가 에피소드에 따라 인권감수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57].

그 다음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 $\beta = .20, p=.004$ )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이수했다고 답변한 경우는 68명(37.6%)으로 과반수 이하의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1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는 교육 실시결과 및 교육 이수율을 점검하는 등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정착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58]하고 있으나, 임상현장에서는 대학병원 간호사로서의 기대역량 및 병원인력의 병원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많은 양의 교육(법정의무교육 포함)을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교육 이수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교육대상별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 $\beta = .17,$

$p=0.016$ )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건강권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85명(47%)으로 과반수 이하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 6. 30.부터 시행된 것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의 문제로 환경을 변화시키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하며, 그 환경의 요소로는 물리적 접근성, 정보접근성,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있다[59]. 이에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환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임상에서 활용가능하며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고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가치를 확립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 장애인건강권법 인지여부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함양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인권감수성, 장애인건강권법을 포함한 장애인환자와 접촉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고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가치를 확립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제언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와 C 특별자치시에 위치한 3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7).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0).
4. C. S. Lee. *Dictionary of Social Welfare*. Blue Fish. (2009).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Understanding the right to health with disabilities.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Seoul. (2020).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on health and health management for the disabled. (2021).
7. R. C. Tervo, G. Palmer, P. Redinius, "Health Professional Student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y", *Clinical Rehabilitation*, Vol.18, No.8 pp. 908-915, (2004). <https://doi.org/10.1191/0269215504cr820oa>.
8. G. H. Choi, "Attitudes of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6, No.4, pp. 119-136, (2012).
9. Allport, G.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1954).
10. D. P. Olsen, "Empathy as an Ethical and Philosophical Basis for Nurs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14, pp. 62-75, (1991).
11. T. Brown, K. Mu, C. G. Peyton, S. Rodger, K. Stagnitti, E. Hutton, J. Casey, C. Watson, C. S. Hong, Y. H. Huang, C. Y. Wu,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ttitudes Toward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between

- Australia, Taiw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30, pp. 1541–1555, (2009).
12. M. J. Kim, “A Research on Non-Special Education Majors’ Attitud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13. I. K. Kim, M. S. Wang, “A Study on Patient Experience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2 pp. 397–404, (2018).
  14. H. S. Kang, J. W. Kim, W. O. Kim, J. N. Park, C. Y. Lee, “The Changes in Interest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Disabled before and after the Disability Experience Program”, *Korean Journal Rehabilitation Nursing*, Vol.7, No.1 pp. 88–95, (2004).
  15. J. A. Mo, “Awareness of Disabled Person and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Rehabilitation Nursing*, Vol.14, No.1 pp. 32–38, (2011).
  16. M. J. Kwon, M. J. Kim, Y. H. Kim, “The Study of Factor that Affects the Stigma and Attitude toward an Adult with a Dis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Vol.8, No.2 pp. 117–125, (2013).
  17. S. Y. Kim, S. H. Lim, H. S. Song, “A Study on the Perception, Experience and Attitude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pp. 535–544, (2018).
  18. I. H. Ki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isabled People in College Students”. *Daegu Catholic University, master thesis*, (2001).
  19. J. N. Lee, “A Study on the Attitude of the General Public Toward the Disabled”. *Sacred Heart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1994).
  20. Y. F. Lee,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Attitude to Accommodate the Disabled by University Students. *Yonsei University, master thesis*, (2015).
  21. M. J. Cheong, H. I. Jo, “Before and After The Challenged Acceptance Attitude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hallenged Students Support Program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2 pp.209–244, (2016).
  22. G. I. Shin, Y. S. Woo, H. Y. Park, J. R. Kim, “A Study about Factors Influencing on Awareness towar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by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21, No.4 pp. 177–193, (2017).
  23. S. Y. Lee, S. J. Seo, D. I. Han,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isabled Person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58, No.1 pp. 27~47, (2019).
  24. S. Shahif, D. R. Idris, A. Lupat, H. Abdul Rahma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Mental Illness among Primary Healthcare Nurses in Brunei: A cross-sectional study”, *Asian Journal Psychiatry*, Vol.45, pp. 33–37. doi: 10.1016/j.ajp.2019.08.013. Epub 2019 Aug 28. PMID: 31479944. (2019).
  25. Rest JR, *Morality*. In P.H. Mussen(Series Ed.), J.H. Flavell and E.M. Markman(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Praeger, Vol.3. pp.556–62. (1983).
  26. Y. R. Moon, M. H. Moon, Y. J. Kwok, M. G. Kim, K. J.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et al.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in Korea*.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27. S. E. Kim, “Cross-sectional Comparison on Human Rights Sensitivity Change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14, No.4 pp.355-362, (2016).
28. J. H. Goung, K. J. Lee, H. S. Kim,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22, No.3 pp. 169-179, (2013).
  29. M. S. Chung, K. C. Lim, J. I. Ko,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in Psychiatric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3 pp. 309-318, (2017).
  30. S. Y. Jung, Y. S. Choi, "A Study on the Human Rights for Mental Disordered and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Workers at a Mental Hospital", *Journal Korean Assoc Soc Psychiatry*, Vol.10, No.2 pp. 117-128, (2005).
  31. K. R. Lee,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ensitivity of human rights among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master thesis]. [Seoul]: Soongsil University, (2012).
  32. D. S. Kim, "The Effect of Decision Making Style of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on Human Rights Sensitivity" [master thesis]. [Seoul]: Soongsil University, (2014).
  33. Health Industry Information and Statistics Center.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Employed in Hospitals. (2020).
  34. B. Marks, "Cultural Competence Revisited: Nurs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6 No.2 pp. 70 - 74, (2007).
  35. V. Matziou, P. Galanis, C. Tsoumakas, E. Gymnopoulou, P. Perdikaris, H. Brokalaki, "Attitudes of Nurse Professionals and Nursing Students Towards Children with Disabilities. Do Nurses Really Overcome Children's Physical and Mental Handicap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 56, pp. 456-460, (2009).
  36. S. J. Moon, E. J. Hwa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the Relationship of Job Satisfaction of Nursing Staff with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Recommendation to others of Patient at Publ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2 pp. 173-184,(2018).
  37. T. W. Lee, K. H. Kang, Y. K. Ko, S. H. Cho, E. Y. Kim. "Issues and Challenges of Nurse Workforce Policy: A Critical Review and Impli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1 pp. 106-116, (2014).
  38. Kim, GO, Jeong. DL, Jeong. HS, An. SK, 2002 Special Education Indicators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pp.173, (2002)
  39. H. E. Yuker, M. K. Hurley, "Contact with and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Measurement of Intergroup Contact",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32, No.3, pp. 145-154, (1987).
  40. J. W. Park,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Well-being, Human Rights Sensitivity, Workplace Bullying of Clinical Nurses", Catholic University, master thesis, (2020).
  41. J. Y. Kim, C. U. Lee, H. J. Lee, D. Y. Hwang, M. S. Kang, "Self-Esteem,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s of Patients' Rights among Cadets in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Korean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37, No.1 pp. 1-11, (2019).
  42. E. K. Cho, "The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Workplace Bullying in Hospital Nurs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9).
  43. S. R. An, "Effects of Empathy Abil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9).

44. J. Y. Hwang, H. K. Choi,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4 pp. 454-464, (2015).
45. M. A. Kim "Human Rights Sensitivity according to Temperament and Character of Mental Hospital Nurse". Hanya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15).
46. Y. G. Yi, J. E. Lee, S. H. Lee, J. Y. Lee, Y. J. Kwon, H. I. Shi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Assess the Attitude of Healthcare Professional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y", *CLINICAL REHABILITATION*. Vol.34, No.5 pp1-10 (2020).
47. K. S. Kim, Y. H. Park, B. S. Lee, J. Y. Kim,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and Contact with Disabled Person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 La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13, No.1 pp. 13-22, (2010).
48. J. H. Kim, S. N. Choi, G. R. Bang, H. J. Kim, S. Y. Lee, "A Study on Attitude, Awareness and Concern of Nursing Student's toward Disabled",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8, No.3 pp. 147-169, (2014).
49. C. S. Yu,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Disabled",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50. A. Uysal, B. Albayrak, B. Koçulu, F. Kan, T. Aydin,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Nurse Education Today*. Vol.34 pp. 878-884, (2014).
51. B. S. Noh, H. J. Park "Attitudes toward Disabled Peopl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23, No. 1 pp. 33-48, (2018).
52. N. Y. Kim, S. S. Jin, "A study on the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regar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0 pp. 701-720, (2020).
53. B. W. Kim,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and Acceptant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eenager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15, No.4 pp. 55-64, (2017).
54. S. Y. Kim, S. H. Lim, H. S. Song,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People with Dis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6 pp. 339-347, (2018).
55. S. H. An,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8).
5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2002)
57. Y. W. Lee, I. S. Jeong, "Human Rights Sensitivity to the Mentally Disabled among Community Resi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38 No.2 pp.1-11 (2012).
5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Disabled, *2020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Guide*. Research Institute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2020).
59.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udgment Selection Committee* (2021).